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

Monday Bishop's Message: May 18, 2020

안녕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세계적인 대재앙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전화기 앱을 통하여 북일리노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범람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드리고자 하는 성경말씀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저는 ReTurn Team (교회건물오픈안내 준비팀)이 만든 보고서의 서론을 읽기 전까지는 노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키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리턴팀의 안내보고서를 읽으며 노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다음주에는 모두 이 보고서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안내서를 다운 받아서 숙지 하시도록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서론에서, “방주 문을 열기 전에 참을성 있게 문을 열어도 되는 싸인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서 그 가 돌보는 모든 육축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고 언급한 노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로 하여금 노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 비록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이웃들은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을 보면서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바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2달 동안 자택격리령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작다해도 노아의 방주안에서 느끼는 폐쇄공포증보다는 덜 갑갑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는 일 없이 지루한 날들 속에 넷플릭스나 보고, 하루 종일 간식이나 먹고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분주하게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에서 요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세탁과 청소같은 집안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방주에 관한 미드래쉬 또는 중세 랍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24시간 모든 동물들에게 때를 맞추어서 음식을 먹이느라 얼마나 지쳤는지 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린 이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일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15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멈추었을



때, 그들이 150일 동안이나 더 갇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40일이 참으로 긴 나날이 었다면 150일은 상상할 수 도 없는 긴 날 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서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한지를 확인 하였으나 마른 땅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명이나 두명의 아들들은 노아에게, “왜 이래요 아빠, 방주 문을 열고 동물 우리에서 밖으로 나가요” 라고 계속 때를 썼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중 한 아들만 창 밖을 내다보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면 빠져서 죽을 거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입니다) 물이 아직도 산봉우리를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아직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한주를 기다린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그냥 돌아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옵니다. 아하! 때가 오는구나, 가까워 오는구나! 하지만 노아는 바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과거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도록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는 또 한주를 기다리고 나서야 정박을 합니다.

제 요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ReTurn Team 의 안내서를 보시면 단계적으로 일리노이 주지사가 발표한 방역 개방 계획에 맞추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바로 육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권고 사항의 단계들이 바뀌어져 있더라도, 많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를 안전하게 사역으로 복귀시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The ReTrun 팀의 가이드 라인은 사역지의 현장과 교회 규모 관계없이 고려해야 할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각 교회는 건강 (Health) 팀을 조직 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가 현장의 상황을 점검 하듯이, 원하시면 비둘기 팀이라고 명명 하셔도 좋습니다! (모임에서 Dove 상표의 초콜릿을 드시면서!) 만약에 팀이 구성이 안되었으면 건물을 잘 아시는 분, 여러 분야의 사역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가능 하시면 건강 분야의 전문인을 포함 하셔서 바로 팀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 임원회에서 이미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아가 단계적으로 상황을 점검 하듯이, 우리들도 상황에 맞추어서 각 지역의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과 방역과 교인들의 마음의 준비, 교인들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 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상황판단의 최선은 건강, 교인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남을 해하지 말라 (Do no harm!) 을 지켜야 합니다.

방주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 기억 하는 것은 결국 무지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하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최근 북일리노이 지역에 몰아친 태풍과 햇빛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았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시를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날마다 무지개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실 때 봄의 소식과 아름다운 꽃송이를 만끽 하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친절한 말과 행동을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와 사랑 과 선하심이 비록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모든 현대식 방법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시겠지만, 제가 어머님 하고 zoom 영상으로 뵙니다!)